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LT모형을 적용한 중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의 음악요소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안 형 진

LT모형을 적용한 중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의 음악요소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김 명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안 형 진

인 준 서

안형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협동학습 모형 중 오케스트라 활동에 적합한 LT모형을 중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음악요소와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중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단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2명을 대상으로 총 10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업 영상, 모둠 평가지, 개인 보고서, 개별 면담, 교사의 관찰 등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의 음악요소 중 리듬, 가락, 화성영역과 사회성 중 사교성, 협동성영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 학생의 음악요소 중 리듬영역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다. 모둠수업 후 학생들은 ‘박자가 일정해졌어요.’, ‘모듬원이 동일한 박자에 맞출 수 있어서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모듬의 리듬실력과 개인의 리듬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는 모듬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학생의 개별적 책무성과 모듬간의 협동의 구조화가 요구되어 리듬학습에 더욱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 학생의 음악요소 중 가락영역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다. 모듬수업 후 학생들은 ‘실수를 알고 고칠 수 있었다.’, ‘어제보다 많이 향상된 것 같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리듬과 동일하게 모듬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학생의 개별적 책무성과 모듬간의 협동의 구조화가 요구되어 가락학습에 더욱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 학생의 음악요소 중 화성영역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다. 학생들은 ‘음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서로서로 채워주며 음을 맞추었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화음실력이 향상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리듬, 가락과 동일하게 개별적 책무성과 모듬간의 협동의 구조화가 요구되어 화성학습에 더욱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 학생의 사회성 중 사교성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다. 학생들은 수업을 참여하며 ‘몰랐던 사람을 알게 되었다.’, ‘서로 도우며 연습하면서 친해지고 악기 연습을 더 잘 할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수업을 통하여 사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T모형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수업계획과 역할분담, 긍정적 목표 상호의존성 구조화, 모듬간의 협동 구조화를 통하여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사교성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 학생의 사회성 중 협동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모듬이 함께 해내서 뿌듯하다.’, ‘오케스트라는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맞춰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수업을 통하여 협동성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T모형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활동과 긍정적 목표 상호의존성의 구조화, 모듬 간 협동의 구조화를 통해 협동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렇게 연구된 자료는 실제 오케스트라 수업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부분에 있어 의의를 갖으며, 학교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도움이 되고, 협동학습을 통한 오케스트라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선행연구 고찰	3
II. 이론적 배경	8
1. 협동학습	8
2. 학교에서의 기악교육	17
3. 음악의 요소	18
4. 사회성	20
III. 연구 방법	25
1. 연구 대상	25
2. 연구 기간	28
3. 연구 설계	28
4. 연구 도구	29
IV. 질적 연구 분석 및 결과	38
1. 음악요소의 변화	38
2. 사회성의 변화	54

V. 결론 65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1>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 절차 모형	13
<표 II-2> 김동환의 사회성 하위요소	22
<표 II-3> 문성원의 사회성 하위요소.....	23
<표 II-4> 이경희, 이규미의 사회성 하위요소.....	24
<표 III-1> 연구대상	25
<표 III-2> 연구대상의 초기상태	26
<표 III-3> 연구내용	28
<표 III-4> 수업 세부 계획	29
<표 III-5>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 지도안.....	30
<표 IV-1> 질적 연구 분석 영역.....	38
<표 IV-2> 모듬의 분담 역할과 담당내용	59

그림 목 차

<그림 IV-1> 영상 촬영 중 연주 모습	39
<그림 IV-2> 합주 영상 관람 모습	39
<그림 IV-3> 1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부족한 점 A	41
<그림 IV-4> 1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부족한 점 B	41
<그림 IV-5> 5차시 모듬 평가지 중 수업 후 느낀 점	43
<그림 IV-6> 5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자랑할 점	43
<그림 IV-7> 8차시 모듬 평가지 중 수업 후 느낀 점	44
<그림 IV-8> 8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자랑할 점	44
<그림 IV-9> 3차시 주선을 표시하는 모습	46
<그림 IV-10> 3차시 반주선을 연습하는 모습	46
<그림 IV-11> 9차시 모듬 평가지 중 수업 후 느낀 점	49
<그림 IV-12> 9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자랑할 점	49
<그림 IV-13> 4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부족한 점 A	51
<그림 IV-14> 4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부족한 점 B	51
<그림 IV-15> 7차시 모듬 평가지 중 수업 후 느낀 점	52
<그림 IV-16> 7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자랑할 점	52
<그림 IV-17> 10차시 모듬 평가지 중 수업 후 느낀 점	53
<그림 IV-18> 10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자랑할 점	53
<그림 IV-19> 10차시 개인 보고서 중 수업 후 잘된 점 A	56
<그림 IV-20> 10차시 개인 보고서 중 수업 후 잘된 점 B	56
<그림 IV-21> 10차시 개인 보고서 중 수업 후 잘된 점 C	56
<그림 IV-22> 수업 시 사용된 역할분담 명찰	59

<그림 IV-23> 스티커 보상제도에 활용된 스티커 판	62
<그림 IV-24> 10차시 개인 보고서 중 배우게 된 점 A	63
<그림 IV-25> 10차시 개인 보고서 중 배우게 된 점 B	63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시대의 교육추세는 지식교육에만 중점을 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음악을 비롯한 예체능과목을 소홀하게 다루며 전인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업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오로지 성적에만 집중된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 생활에서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자살 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면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음악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¹⁾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음악교육이 인성교육과 연관 지어서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목표를 보면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주로 학교에서는 가창수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양한 음악활동에 있어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음악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과학기술부. p. 2

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격형성과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그 중 기악 활동은 악기를 통하여 본인의 감정을 표현해냄으로써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음악적 표현을 할 수 있고 목소리로 제한되었던 음역을 연주해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악곡을 통하여 음악적 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다.²⁾

특히 음악 단체 활동은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익히는 배려심이나 사회성 발달에 큰 교육적 효과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학생들에게 음악 단체 활동 중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은 다양한 악기를 통한 여러 가지 음악적 색채를 느끼며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음악 공동체가 모여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배려심과 사회성을 높여주는 등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최근 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협동학습은 여러 학생들이 소규모로 집단을 구성하여 긍정적 상호의존 관계를 중시하고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집단의 목표나 집단과제의 해결을 하며 함께 학습하는 방법이다.³⁾ 다양한 교과와 학습자 연령에 따라 사용될 수 있으며, 협동학습을 통해 학습동기를 일으키며 문제 해결력 사고와 자아 존중감,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개별적이고 경쟁적인 학습 구도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함께 목표를 이룬다는 방식에서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오케스트라 활동과 협동학습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며, 관련 연구들은 송지예(2015)⁴⁾, 박은영(2009)⁵⁾ 등에

2)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p. 196

3) 한국교육심리학회(2001).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p. 493

4) 송지예(201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중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교적응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박은영(2009). '협동 활동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의해 이루어졌다. 두 사람의 연구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교 적응 및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케스트라에 관한 연구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연구이며, 음악성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협동학습 LT모형을 접목한 중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의 음악요소 및 사회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가. LT모형을 적용한 학교 오케스트라 수업은 학생들의 음악요소 중 리듬, 가락, 화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 나. LT모형을 적용한 학교 오케스트라 수업은 학생들 간의 사회성 중 사교성과 협동심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 앞서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음악수업과 협동학습과 LT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기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았다.

기악곡을 중심으로 협동학습의 과제분담학습모형과 집단탐구 모형을 혼합하여 새로운 모형을 개발한 후 실제 음악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악합주 지도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한 최혜빈⁶⁾은 협동학습을 통하여 각 악기별 연습의 효과와 맡은 악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모듬 안에서 토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학생들이 직접 기악합주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보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기악합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개발된 지도방안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검증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중학교 관악합주부의 음악 기초개념 학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기초개념과 합주학습의 양면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학습지도안을 구안한 한선혜(2010)⁷⁾는 먼저, 중학교 관악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합주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음악학습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에 따라 학습이 필요한 음악 기초개념을 리듬, 화성, 감상학습으로 나누어 관악합주수업에서 필요한 음악 기초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지도안은 전체 합주학습을 비롯한 파트연습, 개인연습의 과정 속에서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검증된 지도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이은정⁸⁾은 감수성이 민감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을 음악 감상에 적용한 수업을 개발하여 16차시의 교수-학습지도안을 6학년 음악 교육과정에 적용한 결과, 전체 정서지

-
- 6) 최혜빈(2015). '협동학습 모형을 혼합한 중학교 기악합주 지도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한선혜(2010). '중학교 관악합주부의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 음악의 기초개념 학습을 통하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이은정(2015).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능과 정서활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모둠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며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적응하고 해결하는 정서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전체 정서지능 향상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일반 교육과정을 적용한 통제집단의 경우에도 정서지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협동학습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LT모형을 적용한 가창활동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송민영⁹⁾은 자아존중감 4개의 모든 영역이 향상되어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 전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 영역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게 향상된 것으로 보아, 협동학습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의 인간관계 형성, 사회성, 대인관계기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학년이 다양하지 못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전체학년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과 연구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명확한 연구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협동학습 LT모형을 접목한 기악합주 지도안을 구안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윤수정¹⁰⁾은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자신감, 흥미도, 협동심, 학습 동기, 자기조절 기악학습능력, 만족감, 성취감에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자기조절 기악 학습능력, 인지조절능력, 동기조절능력, 행동조절능력이 향상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수업 동안 학습자들은 음악에 대한 자신감, 흥미도, 협동심, 학습 동기, 만족감, 성취감 증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9) 송민영(2015). '협동학습 LT모형을 적용한 가창활동이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윤수정(2014). '협동학습 LT모형을 적용한 중학교 기악 합주 교수법'.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초등미술수업에서 LT협동학습 모형이 초등학교 6학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서윤정¹¹⁾은 LT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한 실험집단과 전통 모둠학습을 진행한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두 집단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를 진행하고, 사후검사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검사를 진행하여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전통적 모둠학습을 실시한 통제집단보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전통적 모둠학습에 비해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 더 효과적인 것을 밝혀내었다.

초등학생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정서지능 및 사회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성시민¹²⁾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3학년에서 6학년 학생 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영역 중 타인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지능 하위영역 중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 정서인식영역,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감정이입영역, 정서조절영역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정서지능 중 일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음악활동 중 오케스트라 활동의 학교폭력예방 성과에 대해 연구한 송지예¹³⁾는 교육부 지원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는 중학생과 하지 않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적응, 교우관계에 대하여

11) 서윤정(2014). '초등미술수업에서 LT 협동학습 모형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성시민(2012). '초등학생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정서지능 및 사회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송지예(201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중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교적응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알아보았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지원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학교적응도와 교우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케스트라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의 일환으로서 높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사전, 사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여 연구방법의 타당도를 확실하게 나타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협동학습을 적용한 음악수업은 모둠활동을 통한 각각의 아이들에게 책임감이 부여되며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어 다양한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T모형을 이용한 수업은 음악을 비롯하여 다른 과목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의 사회성, 협동심, 성취감,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오케스트라 활동은 학생의 사회적 지능을 높여주고 교우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학교 적응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음악활동과 자기효능감, 사회성, 정서지능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며, 협동학습과 오케스트라 및 음악요소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수업을 실행하지 않고 지도안과 교수법만 제시한 연구들이 많아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협동학습 LT모형을 중학교 오케스트라 수업에 적용하고 직접적인 수업을 통하여 효과를 나타내고자 한다. 협동학습 LT모형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면서 나타나지 않은 음악요소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협동학습, 학교에서의 기악교육, 음악의 요소, 사회성의 네 가지 측면에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다.

1. 협동학습

가. 협동학습의 개념

협동이란 사전적 의미로서는 여럿이 마음과 힘을 합함¹⁴⁾을 의미한다. 즉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슬라빈(Robert Slavin)에 의하면 협동이라는 말에는 협동적 행동, 협동적 인센티브 구조, 협동적 과제 구조, 협동적 동기 등과 같은 4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협동적 행동이란 서로 도와주며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동적 인센티브 구조란 모든 집단 구성원들의 수행을 바탕으로 집단이나 개인이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협동적 과제 구조는 두 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과제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말하며, 협동적 동기는 이타 주의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위의 네 가지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고, 팀 안에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팀 동료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협동적인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14) 남영신(2008). '국어대사전'. 파주: 성안당. p. 3032

15) 전성연(2007). '협동학습 모형 탐색'. 서울: 학지사. pp. 14-19 재인용.

협동학습이란 구성원이 4~6명인 소집단을 형성하여 구성원 사이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유도하는 교수법¹⁶⁾이며, 협동학습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케이건(Spencer Kagan)’은 “교과에 관한 아이들 간의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학습 과정의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일련의 교수전략이다” 라고 하였고, ‘슬라빈’은 “학습 능력이 각기 다른 아이들의 동일한 학습 목표를 향해 소집단 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수업방법” 이라고 하였다. ‘코헨(Elizaabeth Cohen)’은 “모든 학습자가 명확하게 할당된 공동 과제(collective task)에 참여할 수 있는 소집단 내에서 함께 학습하는 것” 이라고 하였고, ‘변영계’는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주어진 학습 과제나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수업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¹⁷⁾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협동학습을 서로 다른 능력을 소유한 학습자들이 서로의 능력을 공유하여 공통의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상호작용 교수-학습방법 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협동학습은 개별학습이나 전통적 수업보다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경쟁학습은 소수의 학습자만이 성공을 경험 하는 반면, 협동학습에서는 다수의 학습자들이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학습 과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게 되어 학습 태도 개선 및 학습 동기 유발에 기여한다는 점도 협동학습의 의의가 된다. 이러한 협동학습은 모든 학습자에게 동등한 학습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수업 방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협동학습은 전통적인 소집단 학습의 문제점인 부의부현상, 무임승객 효과, 봉 효과 등을 집단 보상 방법과 협동 기술의 훈련으로 해소해나가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¹⁸⁾

16) 한국교육심리학회(2000). ‘전게서’. p. 493

17) 변영계(1999).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p. 20 재인용.

18) ‘상게서’. pp. 34-35

나. 협동학습의 모형

협동학습의 모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각 모형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수업방법이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들은 여러 가지 학습효과를 가져오며 다양한 형태로 학교현장이 적용되고 있다.

슬라빈에 의해 설계된 성취과제 분담학습(STAD)은 4~5명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각 집단끼리 학습지의 내용을 검토하고 구성원들 끼리 퀴즈를 내고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 협동하여 수업 내용을 학습하는 구조이다. 집단 안에서 역할이 분담되지 않은 공동학습 구조이며, 각 집단 안에 한 명의 리더를 선발하여 리더가 팀을 이끌어 가는 형태이다. 보상 구조는 개인의 성취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상되며 집단 점수는 개인별 향상 점수만 계산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도 최고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 능력이 낮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텍사스 대학의 아론슨(Elliot Aronson)에 의해 제안된 직소(Jigsaw)학습 모형은 5~6명의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팀을 나누어 구성하고, 모든 집단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팀 구성원의 수대로 주제내용을 나누어 한 부분씩 담당하여 진행되는 구조이다. 각 집단에서 같은 주제내용을 담당한 학생들은 따로 모여 전문가 집단(expert group)을 구성하며, 이 전문가 집단들은 돌아가 전문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집단 구성원들에게 가르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과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 성취과제 분담학습의 효과는 있으나, 집단에서 보상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형식적으로 갖추어진 집단의 목표는 없다. 즉 구성원 간의 보상 의존성은 없어 집단 보다는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끼치는 모형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중,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 적용되어진다.¹⁹⁾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데이비드 존슨(David Johnson)과 로저존슨(Roger Johnson)에 의해 제안된 함께 학습하기 모형(learning together model; LT)은 5~6명의 이질적인 구성원이 모여 소집단을 구성하고 주어진 과제를 협동적으로 수행한다. 성취과제 분담학습과는 다르게 팀 안에서 리더를 선발하지 않고 집단 구성원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 LT모형은 집단 구성원들이 항상 함께 학습하기 위하여 과제를 집단별로 부여하여 협동과제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상도 개인의 성취와 협동적 행위에 대한 협동보상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도 집단별로 받는다. 이는 집단 구성원간의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을 갖도록 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시험은 개별적으로 시행하나 개인의 성적은 합산하여 소속 집단의 평균 점수를 받는 구조로, 자기 집단 내의 다른 학생의 점수가 개인의 성적에 영향을 준다. 이는 개인의 성취와 모둠의 성취를 둘 다 높일 수 있는 모형이다.²⁰⁾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샤란(Sharan)에 의해 제안된 집단조사 모형(group investigation; GI)은 3~6명 정도의 학생을 소집단으로 하고 학급 전체가 학습해야 할 단원에 대하여 각 집단들은 작은 단원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이후 집단 안에서 더 세분화하여 개인별로 과제를 나누어 학습하는 형태이다. 각 집단은 단원의 집단 보고를 위하여 개인적인 작업이나 토의를 실시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후 학급전체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발표하며, 이때 학습자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를 평가한다.²¹⁾ 이 방법은 STAD나 직소 모형과는 달리, 학습자에게 학습 주제에 대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주고 응용력과 종합력 같은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을 요구한다. 또한 이 모형은 학

19) 박숙희 외 1명(2013).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pp. 143-145

20) 전성연 외 4명(2007). '전게서'. 서울: 학지사. p. 141

21) 이성은 외 2명(2002). '초·중등 교실을 위한 새 교수법'. 과주: 교육과학사. p. 240

습자 스스로 자발적인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협동학습 모형으로 인문사회계열의 과제해결에 용이하며, 기존의 학습방법과 유사하여 적용이 쉽고, 정의적 영역에 대한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협력적 보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단순한 집단학습이 되므로 학습자의 역할 배정이 중요하다.²²⁾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팀 보조 개별학습(team assisted individualization; TAI)은 이질적인 4명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학생들은 배치고사를 통해 개별적인 진단검사를 받은 후, 각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학습 순서를 갖는다. 순서에 따른 진도는 개인의 학습속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인별 독자적으로 학습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팀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학습 단위로 공부하게 되며, 학습을 끝낸 후 평가를 위한 문제지를 풀며, 학생들은 동료와 서로 짝을 지어 답지를 교환하고 서로 점검하여 문제를 수정하여 교사에게 제출한다. 이 개별 시험점수를 모두 합해서 평균을 내어 팀의 점수로 반영된다. 이러한 학습은 개인차를 극복시키고, 협동적 동기를 결합시켜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며 긍정적 상호의존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모형은 수학 교과외의 협동학습과 개별학습을 결합한 수업모형으로 개발되었지만, 다른 과목이나 다른 학년 수준에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²³⁾

이렇게 협동학습에는 다양한 모형들이 있지만, 오케스트라 특성상 다양한 악기군과 이질적인 학습자들로 나누어져 있어, 동일한 악기군끼리 집단을 구성하고 협동적으로 실시하여 개인과 집단에 책임을 부여하는 함께 학습하기(LT)모형이 적합하다.

22) 박숙희 외 1명(2013). '전계서'. pp. 145-146

23) 이성은 외 2명(2002). '전계서'. pp. 243-247

다. LT모형

LT모형은 함께 학습하기 모형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메네소타 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존슨(David Jonhson)과 로저 존슨(Roger Johnson) 형제가 1975년에 개발하였고,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Johnson 모형이라고도 불린다. 모둠 구성은 5~6명의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주어진 과제를 협동적으로 수행하며, 과제는 집단별로 부여하고 보상도 집단별로 하여 평가도 집단별로 받는다. 시험은 개별적으로 시행하나 성적은 소속된 집단의 평균점수를 받아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 다른 학생들의 성취 정도가 개인의 성적에 영향을 준다.²⁴⁾

존슨형제는 수업의 목표 구조를 경쟁 학습 구조, 개별 학습 구조, 협동 학습 구조로 분류한 뒤 협동 학습 구조의 우월성을 지적하고 그 본질적 특징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동료들이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긍정적 상호의존성, 둘째, 자신에게 할당된 수업 자료에 대한 학습과 동료 를 도와주어야 하는 개별적 책무성, 셋째, 동료들 사이의 대면적 상호작용, 넷째, 대인 및 집단 과정의 기능이다.

교사는 학생들 사이의 협동을 구조화하는 것보다, 학습 상황을 협동적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였다. 즉 학생들을 억지로 협동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수업 상황 자체가 학생들이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훨씬 쉽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주요 전략을 권고하였는데, 첫째, 수업 목표를 명료하게 상세화 해야 한다. 둘째,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을 모둠에 배치해야 한다. 셋째, 학생에게 과제와 목표 구조와 학습 활동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넷째, 협동 학습 모둠의 효과를 모니터하고 학생의 학습 과제 활동

24) 전성연 외 5명(2007). '전게서'. pp. 141-162

을 지원하고, 학생의 대인 및 집단 과정 기능이 신장되도록 도와야 한다. 다섯째,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고 학생들이 서로 얼마나 잘 협동 활동을 했는지 토론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존슨형제는 이러한 협동 학습 구조의 특징과 전략에 기초한 수업 모형을 그들의 저서 “Learning Together and Alone”(1975)에서 발표하였고, 이후에 계속 수정 보완하여 “Circles of Learning”(1984)에서 18단계별로 절차를 상세화하였다. 수업의 절차는 <표 II-1>과 같다.²⁵⁾

<표 II-1>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 절차 모형

수업 절차	수업 절차 내용	음악 수업의 적용
수업 목표를 상세화하기	수업 전에 정확한 수업 수준과 학생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지적목표를 제시하고, 수업 중에 협력적 기능 목표를 강조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주날짜 예고 제재곡 영상 감상 학습목표 및 협동 학습 목표 읽기
모둠 크기의 결정	모둠의 크기는 2~6명의 인원수로 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기군 별 모둠구성
학생의 모둠 배치	모둠의 구성원들은 가능한 이질적으로 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및 신입단원 섞어서 구성
교실의 구성	모둠 학생이 서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도록 자리는 원형으로 배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 원형으로 배치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수업 계획	모둠에게 하나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각 학생에게 부분적 자료들을 제시하여 모둠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 표시(현악기), 숨 표시(관악기)가 되어있는 악보 모둠별 한 부씩 제시
상호의존성을 보증하는 역할 분담	모둠 구성원들 간의 상호보완적이고 연결된 역할 분담으로 상호의존성이 나타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자, 연구자, 기록자, 관찰자로 역할분담 차시마다 역할변경

25) 정문성(2007). ‘협동 학습의 이해와 실천’. 파주: 교육과학사. pp. 365-374를 재구성하여 요약 정리함.

수업 절차	수업 절차 내용	본 연구 수업의 적용
과제에 대한 설명	과제에 대해 명확하게 분배하고, 수업 목표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며, 관련 개념을 정의해 주며 수업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의 박자 제시, 리듬꼴 제시, 분량제시, 수업목표 제시
긍정적 목표상호존성의 구조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학습 상황을 강조하며, 과제와 보상의 두 가지 구조화 방식을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커 보상제도-개인별/모듬별
개별적 책무성의 구조화	모듬원 개인을 지적해서 질문하거나, 다른 모듬원의 활동을 점검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개별적 책무성을 강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활동 후 모듬별 무작위 개인 연주예고(모듬평가)
모듬간 협동의 구조화	모듬 내의 협동 학습의 긍정적 결과는 모듬 사이의 협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주의 의미 강조 • 조화로운 합주 연주 강조
성취 기준 설명	교사는 학생이 성취해야 할 절대적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 성취기준 제시(기록자 메모)
바람직한 행동의 상세화	협동 학습 활동에서 바람직한 행동 요령을 제시하여 협동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행동요령 제시(기록자 메모)
학생의 행동을 모니터하기	교사는 모듬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동안 학생이 제대로 협동 활동을 하는지 관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 협동학습 관찰
과제 지원	교사는 모니터 활동을 통해 과제를 완수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정과 전략을 지도하며 최소한의 도움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일어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정 튜닝 • 간단한 박자 및 리듬 제시
개입을 통한 협력적 기능 가르치기	협동 기능이 부족한 학생과 제대로 협동 활동을 하지 못하는 모듬이 있을 때는 개입하여 협동적 기능을 도와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별 역할 점검 • 긍정적 상호의존성 강조
수업 마무리하기	수업의 요점을 요약하고,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 및 스티커 보상
학생의 학습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	절대기준평가를 적용하여 학업 성취와 함께 얼마나 협력을 잘 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 무작위 선정하여 개인연주 및 성취조건 달성 여부 확인 • 팀 별 스티커 보상

수업 절차	수업 절차 내용	본 연구 수업의 적용
모듬 활동에 대한 평가	모듬 활동과 학급 전체의 활동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회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를 활용한 모듬별 평가

이러한 절차를 가진 LT모형이 오케스트라 활동에 적합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질적인 모듬 구성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구조이다. 오케스트라는 다 같이 연습하는 것 보다 파트를 나누어 연습하는 활동이 연주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LT모형의 이질적인 모듬 구성으로 학습 수준과 연주 경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모여 서로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서로 가르쳐 주며, 효과적인 연습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 경쟁구도 보다는 함께 학습하며 협동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오케스트라 활동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듬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소리를 듣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활동에 있어 적합하다.

셋째, ‘함께 살고, 함께 죽는’과 같이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개별적 책무성을 띄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다양한 악기와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다수의 인원이 다양한 파트로 연주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부분을 연주하거나, 연주 부분을 놓치면 연주의 질을 떨어뜨린다. 또한, 같은 파트를 다수가 연주하기 때문에 개별적 책무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LT모형을 통해 개별적 책무성을 강조하여 연주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오케스트라 구성원들이 긍정적 상호의존성과 개별적 책무성을 갖는 것은 오케스트라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동학습 LT모형을 오케스트라 수업 지도안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해보고자 한다.

2. 학교에서의 기악교육

사람은 누구나 음악에 사용되는 도구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도구로 표현하는 음악에 더욱 호기심을 가지며 도구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표현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음악적 도구인 악기의 활용은 가창이나 감상, 창작수업과는 또 다른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학습자에게 자발적인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표현영역을 보면 “음악 요소 및 개념을 이해하며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와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 있게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²⁶⁾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기악교육은 악기를 통하여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한 큰 음량, 넓은 음역을 경험하게 하며, 어려운 기교의 표현을 통하여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악기연주를 통하여 다양한 소리와 음색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청각각을 계발할 수 있고, 소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음악수업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음악적 개념들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되어 기악적인 표현을 통한 리듬, 가락, 화성, 음색, 셈여림, 빠르기 등의 음악적 개념을 보다 쉽게 습득하게 한다.²⁷⁾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과 생활화 영역을 보면 “악곡의 특징을 살려 여럿이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와 “학교 내외의 음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²⁸⁾ 이처럼 기악활동은 연주형태에 따라 독주, 앙상블, 합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소리의 어울림 경험

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전개서'. p. 5

27) 석문주 외 3명(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pp. 169-173

28)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전개서'. pp. 6-10

할 수 있다. 특히 앙상블과 합주활동은 다수의 사람들과 상호관계 속에서 협동심을 배우고 연주력의 향상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과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연주를 통해 음악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기악활동은 개인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또한, 가창활동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학생이나, 변성기의 남학생들은 가창활동보다는 기악활동을 선호할 수 있다. 기악활동은 이러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음악학습에 참여하게 하여 학생들의 음악능력이나, 음악성을 계발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²⁹⁾

최초의 음악적 경험은 가창활동으로 시작하지만, 악기를 매체로 하는 기악활동은 현대 음악 수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기악교육은 여러 가지 악기들을 활용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여 음악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선사한다. 따라서 음악적 능력과 음악적 심성의 계발, 창의성 계발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여 주고, 다양한 연주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음악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교육목적이 있다.

3. 음악의 요소

음악은 소리를 이용하여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음악의 구성요소로는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의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³⁰⁾ 이 중 음악의 3요소라고 불릴 만큼 음악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리듬, 가락, 화성을 중심으로 질적 연

29) 송윤희 외 3명(2013). '예비교사와 현장교사를 위한 초등 음악교육'. 서울: 학지사. pp. 52-198

30) 신현남 외 3명(2011). '음악 이론'. 서울: 교학사, p. 163

구를 진행하였다. 음악의 3요소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듬은 음악의 기초와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여러 가지 길고 짧은 음과 썸여림이 시간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박자는 리듬의 근본적인 단위로서 리듬은 음의 시간과 박, 박질이 적당히 배합된 것을 말한다.

둘째, 가락은 여러 가지 높고 낮은 음과 길고 짧음의 시간적 배합으로 된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높이가 다른 음의 연속적인 형태와 리듬의 요소가 포함된 형태를 말한다. 리듬과 달리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음악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화성은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리듬과 가락을 보강하여 음색의 효과를 더하는 역할을 하며 폭넓고 깊이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한다.³¹⁾

음악의 3요소 중 화성이 없는 음악도 있기 때문에 리듬과 가락이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오케스트라 활동에서는 여러 악기가 모여 동시에 동일한 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리듬과 가락이 정확하게 연주되어야 좋은 연주가 될 수 있다. 또한 악기별로 다양한 성부로 나누어져 화음을 이루기 때문에 화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T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음악적 요소인 리듬, 가락, 화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1) 이성천(2012). '음악통론과 그 실습'. 서울: 음악예술사. pp. 8-9

4. 사회성

가. 사회성의 개념

사람은 개인으로서 존재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형성된 사회 안에서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가며 조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사회성을 발휘하며, 사회성은 인간사회에서 중요시되는 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사회성이란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개념화하기가 쉽지 않으며, 종합적인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회성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의들을 살펴보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심리학회(2000)의 교육심리학 용어사전에 제시된 사회성이란 인격 또는 성격을 나타내는 한 특성으로서 일반적으로 개체의 사회 적응성, 대인관계의 원만성 정도를 가리킨다.³²⁾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인간 자신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갖는 욕구 또는 성향을 말한다. 김동환에 따르면 사회성이란 사회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행동이 내재화된 것으로 사회적 관계의 의식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이며, 넓은 의미로는 성격, 인성 등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사회성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규정하며 사교성 보다는 상위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³³⁾ 김명희에 따르면 사회성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가치를 부여 받고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라고 한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상호 유익하고 특별히 상대방에게 유익한 방법”이라고 정의내리고 있

32) 한국교육심리학회(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p. 174

33) 김동환(1996). ‘교육사회학연구’, 서울: 상조사. pp. 270-278

다.³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기법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과 특별한 상황적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대처해야 하는 일련의 사회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지만 반드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규범 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상황에서의 행동과 관련된다. 대부분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다.³⁵⁾

이현림과 김영숙에 따르면 사회성이란 미완성의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발달하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격적인 특성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즉, 사회성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성질로 개체의 사회적인 적응성과 대인관계의 원만함으로 나타나며,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하는데, 이 사회화 과정은 행동주의 이론에서 제시한 강화의 원리에 의한 조건화와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동일시라는 기제에 대한 설명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³⁶⁾ 이경희와 이규미에 따르면 사회성이란 사회에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을 말한다. 즉 사회생활을 원활히 적극적으로 하며, 타인과 함께하면서 연결된 행동을 행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여러 형태의 사회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인간성도 사회성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³⁷⁾ 성태제에 따르면 사회성은 첫 번째 의미로 혼자 고립되지 않고 타인들과 소통하며 함께 산다는 의미로 사교성과 통하며, 두 번째 의미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기 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의식과 태도로 정의내리고 있다.³⁸⁾

34) 김명희(2004). ‘아동의 사회성 교육’. 서울: 교육아카데미. p. 43

35) ‘상계서’. pp. 42-44

36) 이현림 외 1명(2006). ‘인간발달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pp. 148-154

37) 이경희 외 1명(2012). “고등학생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상담학회, 13(3), p. 1538

38) 성태제 외 12명(2014). ‘최신 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pp. 348-349

사회성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하자면, 사회성이란 주어진 사회 안에서 타인과의 원만한 소통과 어울림, 긍정적으로 관계 맺는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에 맞추어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학생들 간의 어울림과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관계 맺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나. 사회성의 하위요소

사회성은 다양한 사회적 행동 안에서 발생하므로, 매우 복합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은 사회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김동환은 사회성의 하위요소를 신뢰성, 자율성, 지도성, 근면성, 안정성, 사교성, 봉사성, 준법성의 8가지로 나누었다. 각 요소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 II-2>와 같다.³⁹⁾

<표 II-2> 김동환의 사회성 하위요소

하위요소	내용
신뢰성	솔직하고 정직하며 남에게 믿음을 주고 무슨 일이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감정이나 의지
자율성	무슨 일이든 주체성을 가지고 추진하며 스스로 결정하여 일을 수행하고 독창적이며 능동적인 감정이나 의지
지도성	생산성 있게 일을 조직하고 추진하고 결정해 나가는 능력과 발전적이며 진보적으로 집단을 이끌어가는 감정이나 의지
근면성	부지런하고 어려운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한번 계획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수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감정이나 의지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 정도를 말하며,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합리적이고 침착하게 일을 추진하고 객관성 있는 판단력에 따른 감정이나 의지

39) 김동환(1996). '전계서'. pp. 289-291

하위요소	내용
사교성	여러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참여적이고 언제나 희망에 차 있고 매력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호감을 줄 수 있는 감정이나 의지
봉사성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불우한 사람을 돕는 너그러움과 누구와도 따뜻하게 협동할 수 있는 감정이나 의지
준법성	무슨 일이든지 계획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는 감정이나 의지

문성원은 사회성의 하위요소를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 조절의 4개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I-3>과 같다.⁴⁰⁾

<표 II-3> 문성원의 사회성 하위요소

하위요소	내용
협동성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르는 것과 같은 행동
주장성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구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또래로부터의 압력이나 모욕과 같은 행동에 반응하는 등의 차이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
공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관점에 대해서 관심과 존경을 보여주는 행동
자기조절	짓곳은 놀림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과 같은 갈등 상황에 나타나는 행동과, 교대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것과 같은 비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

이경희와 이규미는 사회성의 하위요소를 협동성, 사교성, 자주성, 지도성, 신뢰성의 5개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II-4>와 같다.⁴¹⁾

40) 문성원(2003).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 I (K-SSRS:중고생용 I)의 표준화 :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p. 238

41) 이경희 외 1명(2012). “전계서”. p. 1542

<표 II-4> 이경희, 이규미의 사회성 하위요소

하위요소	내용
협동성	자기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존중하며, 집단 활동에 즐겨 참여하고 집단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남의 처지를 이해하며, 잘 협력하는 정도
사교성	여러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참여적이고 언제나 희망에 차있고 매력 있는 행동을 함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정도
자주성	무슨 일을 하든지 주체성을 가지고 추진하며, 스스로 결정하여 일을 수행하고 독창적이며 능동적인 감정이나 의지를 의미
지도성	생산성 있게 일을 조직하고 결정해 나가는 능력과 집단을 이끌어 가는 감정이나 의지
신뢰성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나가고 타인에게 믿음을 주는 감정이나 의지

위의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성의 하위요소 중 개인 활동을 통해 변화가 나타나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단체 활동을 통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사교성과 협동성 2가지를 선정하여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김동환과 이경희, 이규미가 제시하고 있는 사교성의 내용 중 여러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며 참여적인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사교성을 정리하며, 문성원과 이경희, 이규미가 제시하고 있는 협동성의 내용 중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하며, 자기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존중하며, 집단 활동에 즐겨 참여하여 모둠 간의 협력하는 정도로 정리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협동학습 LT모형을 적용한 음악과 창작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하였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연구 설계, 연구 도구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중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 단원 1학년부 터 3학년 14명(1학년 6명, 2학년 2명, 3학년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학년의 경우 인원이 적어 수업은 참여하였으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표 III-1>, <표 III-2> 과 같다.

<표 III-1> 연구대상

학년	변인	학생	악기	오케스트라 활동 경력
1	신입단원	A	바이올린	X
1		B	바이올린	6개월
1		C	트롬본	X
1		D	트롬본	X
1		E	바이올린	X
1		F	클라리넷	6개월
3	기존단원	G	플루트	3년
3		H	바이올린	3년
3		I	바이올린	3년

학년	변인	학생	악기	오케스트라 활동 경력
3	기존단원	J	플루트	3년
3		K	바이올린	3년
3		L	바이올린	3년

<표 III-2> 연구대상의 초기상태

변인	학생	초기상태
신입 단원	A	악기 연주에 자신감이 부족하며,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악보 읽는데 어려움이 있고,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어울리는 단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B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초견 능력이 좋다. 참여도가 높고 활발하며 사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선배들을 어려워한다.
	C	피아노를 배운 경험이 있어서 악보를 잘 본다. 합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악기연주는 자신감 있게 한다. 소수와 친하게 지낸다.
	D	악기연주는 좋아하지만 악보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다. 선배들을 어려워하는 편이며, 소수와 친하게 지내고 이외의 단원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	악기 연주에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한다. 악보를 잘 못 보지만 악기 연주는 잘 하는 편이다. 형들은 잘 따르지만 누나나 이성 친구는 어색해 하는 편이다.
	F	오케스트라 유경험자며, 악기 레슨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로 기존단원과 실력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하지만 소극적인 성격으로 친하게 지내는 단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단원	G	악기 연주에 자신감을 보이며 동아리 연습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신입단원들을 잘 챙겨주려는 모습을 보이며, 기존단원들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다.

변인	학생	초기상태
기존 단원	H	악기를 배운 기간이 길며, 단원들 중에서 곡에 대한 파악이 뛰어나며 초견 능력이 좋다. 하지만 소수의 단원들하고만 어울리며 신입단원을 어색해하며 조금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I	악기연주에는 흥미를 갖고 있지만, 동아리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동성 친구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지만, 이성 친구나 신입단원들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J	오랜 기간 동아리 활동을 하여 연주 실력이 좋은 편이지만 자신감이 많이 부족하다. 밝은 성격으로 보이지만, 기존단원과 신입단원 중에 친하게 지내는 단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K	악기를 배운 기간이 짧아 학년에 비해 악보 읽거나 악기 연주 조금 어려워한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기존단원이나 신입단원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성향이 있다.
	L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지만 악기 연주에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고 악보 보는 것을 어려워한다. 또한 실수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 밝은 성격으로 보이지만, 어울리기 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을 보인다.

연구 대상은 학년에 따라 1학년은 신입단원, 3학년은 기존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단원들은 모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오케스트라 활동을 한 학생들이며, 신입단원들을 올해 3월부터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합류된 학생들이다. 개인레슨 경험이 있는 2명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신입단원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처음으로 악기를 접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선호에 따라 연주 악기를 선택하였다. 개인레슨 경험이 있는 신입단원 B와 F는 오케스트라에 바로 합류하여 연주 활동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신입단원들은 악기 주법과 연주 방법 및 악보 읽는 법 등을 익힌 후 이번 연구 수업부터 오케스트라에 합류되었다.

2.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진행 되었으며, 기간별 연구 내용은 다음 <표 III-3> 과 같다.

<표 III-3> 연구내용

연구절차	연구내용	연구기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선정• 연구계획 수립• 연구 대상 섭외	2015년 4월~7월
이론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	2015년 4월~2016년 5월
수업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내용 선정• 협동학습 을 적용한 지도안 개발	2015년 8월~2015년 12월
수업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수업 진행• 학생 인터뷰 진행	2015년 10월~2015 12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을 통한 결과 분석	2016년 1월~3월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론 도출• 논문 최종 수정 및 보안	2016년 3월~6월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여 차시 별 목표에 맞게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도출을 위해 실시한 검사 도구는 자체 제작한 수업 지도안을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전 수업을 녹화 및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모둠학습지, 개인 보고서, 개별 면담, 교사의 관찰에 의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도구

가. 수업 프로그램

본 연구는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으로 수업 환경과 여건,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을 추출하여 목표를 선정하고 학습과정을 설계하였다.

1)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학습내용 선정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참여집단의 학생 수와 악기편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제재곡을 선정하였으며,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학생들의 음악 성취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에 맞추어 리듬, 가락에 관련지어 수업내용을 선정하였으며, 박자가 다른 3개의 제재곡을 선정하였다. 수업의 세부 계획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수업 세부 계획

차시	제재곡	학습 내용	학습 활동	영역
1	인생의 회전목마	음표와 박자	리듬에 대한 기본이론 학습	리듬
2		6/8박자	6/8박자 리듬꼴 연주와 지휘하기	리듬
3		가락의 흐름	주선을 파악하기	가락
4		화음의 어울림	잘 어울리는 음정 구분하기	화성
5	위풍당당 행진곡	2/4박자	2/4박자 리듬꼴 연주와 지휘하기	리듬
6		가락의 흐름	주선을 파악하기	가락
7		화음의 어울림	잘 어울리는 음정 구분하기	화성

차시	제재곡	학습 내용	학습 활동	영역
8	브람스 왈츠	3/4박자	3/4박자 리듬꼴 연주와 지휘하기	리듬
9		가락의 흐름	주선을 파악하기	가락
10		화음의 어울림	잘 어울리는 음정 구분하기	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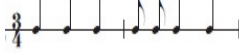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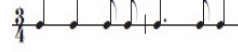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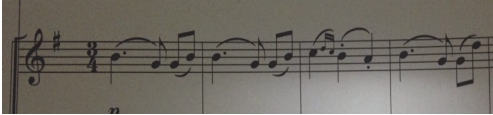
2) LT모형을 적용한 교수 학습 지도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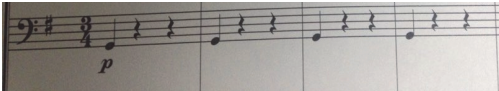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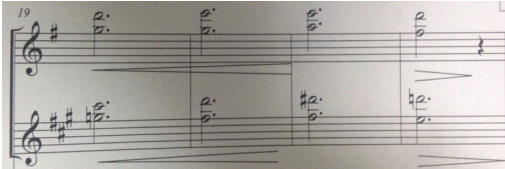
LT모형을 적용한 교수 학습 지도안 10차시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다음 <표 III-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의 교수 학습 지도안 중 8차시 지도안이다.

<표 III-5>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 지도안

수업모형		LT모형	수업대상	7~9학년
제재곡		왈츠 -J.Brahms	차시	8/10
수업주제		협동을 통하여 정확한 음정과 리듬을 갖춘 제재곡 합주.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확한 음정과 리듬으로 지휘에 맞추어 '왈츠' 처음부터 ⑩까지 합주할 수 있다. 		
협동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 구성원과 협력하여 정확한 음정, 리듬, 박자를 갖추어 '왈츠' 처음부터 ⑩까지 연주할 수 있다. 모듬 구성원끼리 정확한 음정, 리듬, 박자를 갖추어 '왈츠' 처음부터 ⑩까지 합주할 수 있다. 		
학습자료		연주영상, 악보, 악기, 보면대, 필기구, 역할명찰, 학습지, 스티커 판, 스티커		
학습 단계	시간 (분)	LT모형 협동학습 절차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10	1. 수업 목표의 상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식 날 연주할 것임을 예고하며, 제재곡 영상을 보여주고 동기부여를 일으킨다. ❖ 학습목표와 협동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는다. 	*졸업식 날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p>*칠판에 학습목표와 협동학습 목표를 판서한다.</p>
2. 모듬의 크기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 파트별 4~5명씩 3모듬을 구성하고, 파트별로 나누어진 인원들이 모여 구성원들을 확인한 후 서로 마주보며 원형으로 자리를 배치한다. ❖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음악적 수준을 파악하고, 기존단원과 신입단원을 섞어서 모듬을 구성하여 쏠림 현상을 막는다. 	<p>*교사와 학생은 자리를 배치한다.</p> <p>*구성된 파트는 제재곡에 의해 재구성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한다.</p>	
3. 모듬배치	<p>(모듬별 구성된 파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모듬: 1ST 바이올린 ◆ 2모듬: 2ND 바이올린, 3RD 바이올린 ◆ 3모듬: 1ST, 2ND 플루트, 첼로, 트롬본, 클라리넷 		
4. 교실구성			
5.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수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식 연주곡목을 알려주며, 제재곡의 악보를 나눠주고 합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 상호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현악기는 '활표시', '관악기'는 숨표시가 되어있는 악보를 하나만 나눠주고 모듬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호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모듬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점검자/연구자/기록자/관찰자) <p>(역할별 임무)</p>	<p>*협동학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각 역할에 대해 숙지하도록 한다.</p>	
6. 상호의존성을 보증하는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자: 구성원들이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같은 박자로 연주할 수 있도록 손이나 발로 박자를 친다. ◆ 연구자: 모듬이 연습이 필요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연구하며, 교사와 다른 모듬과 의사소통한다. ◆ 기록자: 모듬의 학습지를 기록하고, 수업 후 모듬원의 명찰을 걷는다. ◆ 관찰자: 모듬 안에서 협동적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p>*모듬 내 역할은 차시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한다.</p>	

전 개	30	7. 과제에 대한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박자의 곡에서는 J를 한 박자로 하는 것을 설명하고, 3/4박자의 지휘를 제시하여 다 같이 해본다. ❖ 3/4박자의 리듬꼴을 제시하여 각 음표의 박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p>1.  2. </p> <p>3.  4.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왈츠' '왈츠' 처음부터 ㉔까지의 수업분량을 제시하고, 각자 악보를 보고 수업 분량까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 오늘 수업 분량까지 악보에 제시된 셈여림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파트별로 성취해야 하는 분량과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시킨다. <p>(전체 과제-"왈츠" 처음부터 ㉔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보를 보고 운지와 리듬을 익힌다. ◆ 현악기는 활의 방향을 맞추고, 관악기는 숨 쉬는 곳을 표시한다. ◆ 악보에 셈여림이 제시된 곳을 표시하고 지켜 연주한다. ◆ 모듬원이 다 같이 음정과 리듬을 맞추어 합주한다. ◆ 점검자의 박자에 맞추어 모듬 구성원 끼리 합주한다. <p>(모듬별 과제-"왈츠" 처음부터 ㉔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모듬(1ST 바이올린) <p>1. </p> <p>처음부터 ㉔까지의 악보에 활의 방향(□,▽)을 표기하여 다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하고, 3마디의 꾸밈음의 리듬을 제시하여 모듬전체가 동일한 리듬을 형성하도록 한다. 또한 도#의 운지를 한 명씩 점검하여 정확한 음정을 잡고 모듬구성원</p>	<p>*모든 학생들이 악보를 볼 수 있도록 한다.</p> <p>*수업 목표를 칠판에 적어 학생들이 인지를 돕는다.</p>
--------	----	-----------------------	--	---

		<p>끼리 음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p> <p>2. 합주에서 주선율 부분의 중요도에 대해 인지시켜며, 1-8마디, 16-22마디에 나오는 주선율의 리듬과 박자를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정확한 음정을 잡고 모듬구성원끼리 음정과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모듬(2ND 바이올린, 3RD 바이올린)  <p>1. 2ND 바이올린과 3RD 바이올린은 처음부터 ⑥까지 활방향(□,▽)을 표기하여 다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임시표 음정(라#, 도#, 파♯)의 운지를 한명씩 점검하여 정확한 음정을 잡고 모듬구성원끼리 음정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p> <p>2. 합주 박자를 제시하여 점검자는 박자의 템포를 익혀 박자를 칠 수 있도록 하며, 악보의 첫째 박자에 나오는 4분 쉼표의 박자를 제시하여 모듬구성원끼리 동일하게 쉬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모듬(1ST, 2ND 플루트, 첼로, 트롬본, 클라리넷)  <p>1. 첼로와 트롬본은 이 곡에서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베이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음정과 박자를 잘 잡아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4분 쉼표의 박자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첼로와 트롬본파트가 동일한 박자를 쉬고 연주할 수 있도록 한다.</p>  <p>2.</p>	
--	--	--	--

		<p>플루트와 클라리넷은 장 3화음이 구성되므로 피아노로 구성된 3화음을 들려주고 파트별 한명씩 음정을 체크하여 정확한 음정으로 화음이 잘 어울리도록 한다. 또한 임시표 음정을 체크하여 음을 정확하게 집을 수 있도록 한다.</p>					
	<p>8. 긍정적 목표상호 의존성의 구조화</p>	<p>❖ 합주의 의미를 언급하며, 각 학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해야 모듬 전체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킨다. ❖ 과제와 보상의 두 가지 구조화 방식을 사용하여 개인의 과제 성공 시 모듬 전체에 스티커로 부여한다.</p> <p>(스티커 보상제도-개인별/모듬별)</p> <table border="1" data-bbox="533 1072 1086 1509"> <thead> <tr> <th data-bbox="533 1072 810 1106">개인</th> <th data-bbox="810 1072 1086 1106">모듬</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33 1106 810 1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 먼저 온 사람 (2개) ◆ 끝나는 시간까지 참여한 사람 (1개) </td> <td data-bbox="810 1106 1086 1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행동을 한 모듬-긍정적 상호작용 (각 1개씩) ◆ 질문에 대답한 개인이 속한 모듬(각 1개씩) ◆ 각자 역할에 충실한 모듬(각 1개씩) ◆ 모듬별 한 명씩 연주할 때, 성취요건(음정, 리듬, 박자)을 성취한 모듬(각 1개씩) </td> </tr> </tbody> </table>	개인	모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 먼저 온 사람 (2개) ◆ 끝나는 시간까지 참여한 사람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행동을 한 모듬-긍정적 상호작용 (각 1개씩) ◆ 질문에 대답한 개인이 속한 모듬(각 1개씩) ◆ 각자 역할에 충실한 모듬(각 1개씩) ◆ 모듬별 한 명씩 연주할 때, 성취요건(음정, 리듬, 박자)을 성취한 모듬(각 1개씩) 	<p>*스티커 보상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스티커 평가는 개인별이 아닌 모듬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p>
개인	모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 먼저 온 사람 (2개) ◆ 끝나는 시간까지 참여한 사람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행동을 한 모듬-긍정적 상호작용 (각 1개씩) ◆ 질문에 대답한 개인이 속한 모듬(각 1개씩) ◆ 각자 역할에 충실한 모듬(각 1개씩) ◆ 모듬별 한 명씩 연주할 때, 성취요건(음정, 리듬, 박자)을 성취한 모듬(각 1개씩) 						
	<p>9. 개별적 책무성의 구조화</p>	<p>❖ 개인은 자신의 과제를 완수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과제를 완수하도록 도와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수업 마무리 후 모듬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개인 연주를 할 것임을 예고하고, 평가에 반영될 것임을 인지시킨다.</p>					

<p>10 모듬간 협동의 구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간의 협동이 이루어지도록 합주의 의미를 언급하며, 다른 모듬간의 협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업 마무리 후 다 같이 합주할 것임을 예고한다. 	<p>*모듬별로 경쟁구도 보다는 함께 조화를 이루어 연주해야 좋은 연주가 된다는 점을 강조시킨다.</p>
<p>11. 성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각 모듬의 기록자는 메모할 수 있도록 한다. <p>(성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 구성원끼리 음정을 정확히 맞추어 연주했는가? ◆ 모듬 구성원끼리 리듬을 정확히 맞추어 연주했는가? ◆ 모듬 구성원끼리 호흡은 잘 맞추었는가? (현악기: 활 방향/관악기: 숨표) ◆ 곡의 셈여림을 잘 맞추어 연주했는가? ◆ 지휘를 보고 박자를 잘 맞추어 연주 했는가? 	<p>*성취기준에 대해 칠판에 명시하며, 기록자는 메모하여 모듬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p>
<p>12. 바람직한 행동의 상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 내 규칙사항을 정한 후 모듬 내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을 각인시킨다. <p>(바람직한 행동요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활동 시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다. ◆ 배정된 역할의 임무를 성실하게 지킨다. ◆ 모듬활동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역할자의 의견을 잘 따른다. ◆ 모듬 구성원들끼리 서로 격려한다. 	<p>*바람직한 행동요령에 대해 칠판에 명시하며, 기록자는 메모하여 모듬 구성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p>
<p>13. 학생의 행동을 모니터하 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끼리 협동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하며, 각 역할들이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협동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없는지 파악한다. 	<p>*각 모듬별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p>

		<p>14. 과제 지원</p> <p>15. 개입을 통한 협력적 기능 가르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각 모듬의 연구자와 의논하여,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과정과 전략을 지도한다. ❖ 협동 기능이 부족하거나 협동 활동을 하지 못하는 모듬에 개입하여, 협동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p>(교사의 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정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 교사가 개입하여 악기 튜닝을 해준다. ◆ 점검자가 박자를 일정하게 못하는 경우, 교사가 개입하여 박자를 잡아준다. ◆ 리듬을 잘 모르는 경우 교사가 개입하여 연구자에게 알려주고 다른 구성원들은 연구자에 의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p>*협동 활동에 문제가 있는 모듬은 교사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p>
정리	10	16. 수업 마무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수업의 요점을 요약하고 달성하였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 학습지를 나눠주어 기록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모듬활동을 마무리한다. 	<p>*질문에 대답한 모듬을 메모하고 스티커를 보상한다.</p>
		17. 학생의 학습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 무작위로 선정하여 개인 연주를 시키고 성취요건(음정, 리듬, 박자)을 성취한 개인이 속한 모듬에 스티커를 보상한다. ❖ 기록자는 학습지에 개인별 참여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p>*절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각 모듬별 학습지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p>
		18. 모듬 활동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모니터 활동과 개입을 통해 잘한 모듬과 부족한 모듬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잘한 모듬에게는 칭찬을, 부족한 모듬에게는 격려를 한다. ❖ 기록자는 성취 기준에 따라 모듬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p>(성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 구성원끼리 음정을 정확히 맞추어 연주했는가? ◆ 모듬 구성원끼리 리듬을 정확히 맞추어 연주했는가? ◆ 모듬 구성원끼리 호흡은 잘 맞추었는가? (현악기: 활 방향/관악기: 숨표) ◆ 곡의 셈여림을 잘 맞추어 연주했는가? ◆ 지휘를 보고 박자를 잘 맞추어 연주했는가? 	
--	--	--	--

IV. 질적 연구 분석 및 결과

본 연구는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이 중학생의 음악요소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결과 분석을 위해 전 수업을 녹화,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학생들의 모둠 평가지, 개인 보고서, 개별 면담, 교사의 관찰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분석 영역은 음악요소와 사회성으로 크게 나누었으며, 음악요소는 리듬, 가락, 화성 영역, 사회성은 사교성, 협동성 영역으로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질적 연구 분석 영역

영역		제목	분석 자료
음악요소	리듬	같은 호흡, 같은 걸음	수업 녹화 및 녹음, 모둠 평가지, 개인 보고서, 개별 면담, 교사의 관찰, 수업 녹음
	가락	주인공을 정확하게	
	화성	우린 제법 잘 어울려	
사회성	사교성	함께라면 즐거워	
	협동성	우리 같이 WIN WIN	

1. 음악요소의 변화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음악요소를 높이기 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오케스트라의 특성에 맞추어 음악요소의 하위 영역을 리듬, 가락, 화성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 따라 리듬영역 1, 2, 5, 8차시, 가락영역 3, 6, 9차시, 화성영역 4, 7, 10차시로 진행되었으며,

총 10차시로 구성하였다. 수업 제재곡은 총 3곡이며, 박자가 모두 다른 곡을 선정하였다. 제재곡 마다 3~4차시의 수업이 진행되었고, 차시별 리듬, 가락, 화성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영역별 세분화 된 수업진행을 통하여 각각의 영역에 개별적인 변화를 주었다.

가. 같은 호흡, 같은 걸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오케스트라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로 모두 악기 연주가 가능한 학생이었다. 기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1년 이상 진행한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신입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6개월간의 개별적인 악기 레슨을 통하여 오케스트라 연주에 참여 가능한 학생들이었다. 이렇듯 기존단원들과 오케스트라 활동에 처음 합류하는 신입단원들이 섞여있어 합주 능력에 굉장한 차이를 보였다. 첫 수업 때 오케스트라의 기본적인 연주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업 제재곡 중 한 곡을 임의로 선정하여 연주하고 촬영한 후 단원들에게 보여주었다. 영상을 본 후 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였다. 연주할 때는 악보에만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해 연주하는 모습이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자신들의 연주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영상 관람 후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그림 IV-1 영상 촬영 중 연주모습>



<그림 IV-2 합주 영상 관람 모습>

·1차시 수업 중

* 신입단원

학생B: “소리랑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

학생C: “푸 하하하...”

학생E: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 기존단원

학생G: “으악 못 들겠어요.”

학생H: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학생I: “그만 들으면 안돼요?”

·1차시 수업 중 영상 관람 후의 반응

또한, 신입단원들과 기존단원들의 반응은 큰 차이를 보였다. 신입단원들은 대부분 “제재곡의 선율을 파악하기 힘들다.”거나 “어떤 곡인지 모르겠다.”, “못 하겠다.”라는 반응이었다. 신입단원들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처음이기 때문에 곡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과 맞춰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였다. 반면 기존단원들은 “연주를 못 들겠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만 듣자.”라는 반응을 나타내며, 본인들의 연주를 평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볼 때, 연구 대상들은 음악적 경험 및 연주 경력과 따른 음악적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학생들에게 연주가 잘 맞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첫째는 지휘자를 보지 않고 각자 악보에만 의존하여 개별적인 연주를 했고, 둘째는 단원들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음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1차시 수업을 마무리하고 악기 파트별로 모여 관람 후 느낀 점에 대해 학습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1차시의 모듬 학습지의 내용이다.

부족한 점에 대해 쓰세요.

음리가 안맞고 박자도 안맞는거

<그림 IV-3 1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부족한 점 A>

* 주의 부족한 점에 대해 쓰세요.

조화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 IV-4 1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부족한 점 B>

·1차시 수업 후

본격적으로 2차시 리듬수업에 들어가서 모든 학생들이 곡에 대한 박자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재곡 박자의 지휘를 알려주었다. 지휘를 통해 박자 감을 어느 정도 익히도록 하고, 제재곡 안에 있는 리듬을 토대로 여러 가지 리듬꼴을 제시하였다. 퀴즈를 통해 학생들이 음표의 길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제시된 리듬꼴을 박자에 맞추어 정확하게 연주하지 못했다. 따라서 리듬꼴로 제시된 음표 중 가장 긴 음표부터 가장 짧은 음표까지 일정한 박자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을 설명하였고, 손뼉으로 박자를 치며 구음으로 교사가 시범을 보인 후 학생들이 따라하도록 하였다. 다음 단계로 ‘라’ 음을 가지고 각자의 악기로 일정한 박에 맞추어 하나의 리듬꼴을 연주하였다. 이후 다른 리듬꼴을 제시하였을 때 학생들은 스스로 박자를 치며 파악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리듬도 비교적 정확했다. 이렇게 리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하게 한 후 미리 구성된 모듬끼리 모여 모듬활동을 시작하였다. 첫 번째 모듬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교사: “모듬끼리 리듬이 잘 연주되고 있나요?”

* 신입단원

학생B: “혼자 할 때 보다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학생E: “선생님이 맞춰주세요. 너무
안 맞아요.”

학생F: “제가 이상한 거 같아요.
못 맞추겠어요.”

* 기존단원

학생I: “한명 한명이 박자가 다
달라요.”

학생K: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학생L: “옆 친구가 자꾸 빨라져서
같이 빨라져요.”

· 2차시 수업 모듬활동 중

모듬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모듬별로 박자가 주어진 상태라도 다 같은 박자로 리듬을 연주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특히 신입단원 학생 B, E, F의 반응에서 나타나듯이 모듬 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틀린 느낌이 들면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기 미숙하므로 교사에게 무조건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기존단원들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맞추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입단원과는 상대방의 연주와 자신의 연주를 비교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신입단원과 기존단원 섞어서 모듬을 구성하였고, 모듬 구성원끼리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배정하였다. 이는 집단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구성원끼리 일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을 갖도록 하였고, 교사의 개입은 최소화하였다. 역할을 배정하고 각 집단의 점검자는 지휘자의 역할을 하며 점검자의 박자에 맞추어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차시별로 변화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교사: “절걸자들의 박자에 맞춰 보니까 어때요? 모듬끼리 리듬이 잘 맞춰지나요?”

* 신입단원

학생C: “박자가 잘 들려서 다 같이 맞추기 훨씬 쉬워요.”

학생E: “저희가 해냈어요!”

학생F: “저희 저번보다 훨씬 잘해요! 한번 봐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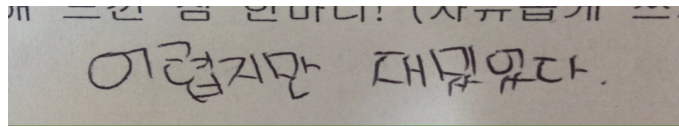
* 기존단원

학생H: “절걸자의 박자가 자꾸 빨라져서 맞추기가 어렵지만, 저번보다 잘 맞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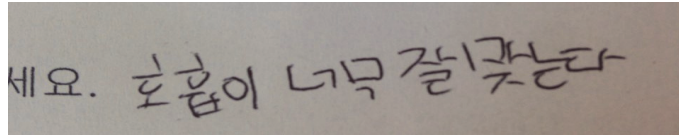
학생J: “박자가 일정해졌어요.”

학생K: “다 같이 동일한 박자에 맞출 수 있어서 좋아요.”

· 5차시 수업 중 학생들의 반응



<그림 IV-5 5차시 모듬 평가지 중 수업 후 느낀 점 >



<그림 IV-6 5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자랑할 점>

·5차시 수업 중

위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과 모듬 평가를 보면 5차시 수업 때 학생들은 이전의 수업보다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리듬을 어려워했던 신입단원들도 향상된 모습에 만족해하며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교사 의존도가 높았던 신입단원 학생E는 모듬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해냈다는 것에 대한 큰 성취도를 느끼며 자신감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단원들도 모듬활동

연습에 점차 적응해나가며, 기존에 갖고 있던 리듬체계를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존단원과 신입단원 모두 모듈활동을 통한 리듬학습에 흥미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8차시의 수업에서 나타난 반응이다.

교사: “오늘 마지막 리듬수업이 진행되었어요. 각자의 연주에 변화가 있나요?”

* 신입단원

학생B: “이제 어떤 박자의 리듬도 바로 연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학생C: “악보 보는 게 쉬워졌어요.”

학생E: “박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 기존단원

학생K: “지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G: “연주가 빨라지지 않는 거 같아요.”

학생L: “처음에는 진짜 안 맞았었는데, 신기해요.”

· 8차시 수업 중 학생들의 반응

: 실수를 알고 고칠 수 있었다
박자계열을 알게 됨

<그림 IV-7 8차시 모듈 평가지 중 수업 후 느낀 점>

대해 쓰세요.
처음보다 많이 느꼈다.
대해 쓰세요

<그림 IV-8 8차시 모듈 평가지 중 모듈의 자랑할 점>

·8차시 수업 후

처음 모듬 활동을 진행 했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매번 리듬과 선율이 갖추어진 악보를 보고 연주 하였는데, 리듬만 제시된 악보를 가지고 한 음으로 연주하게 하니 굉장히 생소해하였다. 하지만 여러 차시를 걸쳐 리듬 수업을 하고난 후 학생들의 리듬은 정확해졌고, 새로운 리듬꼴을 제시해도 이전보다 수월하게 파악하였다. 특히 신입단원들은 악보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악보 읽는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졌고, 기존단원들은 지휘의 중요성을 알고 지휘에 맞추어 연주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또한, 모듬 활동을 통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동일한 박자에 맞추어 연주하게 하니 상대방의 리듬을 듣고 서로에게 맞추며 일정한 박자패턴을 갖게 되었고, 리듬이 훨씬 정확해 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나. 주인공을 정확하게

전 차시에서 제재곡에 대한 박자와 리듬을 정확하게 갖추고 이해하게 한 후 다음차시로 가락영역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1차시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은 본인들의 악보에만 충실히 연주하며 각자 개별적으로 연주하여 곡에서 주선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먼저 학생들이 주선율을 파악하도록 각 제재곡 마다 주선율로만 연주된 곡의 영상을 찾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이 후 제재곡의 주선율 악보를 각 모듬별로 제시하여 가락의 높고 낮음을 선으로 표현하여 음 높이를 판단하게 하였다.

교사: “각 모듬별로 악보의 음표들을 보고 가락선을 그리면서 주선율을 익혀볼게요.”

* 신입단원

학생A: “주선율 악보는 처음 봐!”

* 기존단원

학생L: “내가 선 그어볼래!”

· 3차시 수업 중

가락선 악보 예시 후 활동을 진행하였을 때, 악보를 읽기 힘들어했던 신입단원 학생A와 기존단원 학생L은 굉장한 흥미를 나타내었다. 두 학생이 맡은 파트에는 악기 특성상 주선율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맡은 파트보다 난이도 있는 주선율 악보를 제시하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은 감상활동 후 악보를 제시하니 음의 높고 낮음을 빠르게 이해하고 선율의 흐름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V-9 3차시 주선율 표시하는 모습> <그림 IV-10 3차시 반주선율 연습하는 모습>
·3차시 수업 중

학생들이 주선율을 인지하기 전에는 모든 파트들이 썬여림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동일한 크기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주선율이 들리지 않거나, 리듬 선율이 굉장히 크게 연주되어 주선율을 방해하는 연주를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파트를 크고 정확하게 연주하면 잘 하는 연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은 3차시 수업 중 합주 후 질문 내용이다.

교사: “여러분, 방금 한 연주가 어떤가요? 잘 된 연주라고 생각하나요?”

* 신입단원

학생B: “저희 파트는 잘했는데..
박자에 잘 맞춰서 나갔어요!”
학생E: “안 틀리게 연주했어요!”

* 기존단원

학생G: “이번엔 다 잘 한 거 같은데”
학생H: “우리파트 소리가 좀 작았던
거 같다. 좀 크게 하자!”

· 3차시 수업 중 합주 후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락선 활동을 통하여 주선율을 비롯한 자신의 파트 악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였지만, 반주 파트들은 주선율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 주선율을 담당하는 기존단원 학생H만이 본인 파트의 소리를 크게 연주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선율이 나오는 마디를 각 모듬의 연구자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그 부분은 주선율을 듣고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후 모듬활동을 통하여 반주 파트의 학생들은 주선율이 나오는 마디를 인지하게 하였고, 주선율 파트는 좀 더 명확하고 큰 소리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듬간의 섞여림을 다 같이 맞추어 연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발전되는 선율영역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교사: “합주할 때 주선율 파트의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하나요?”

* 신입단원

학생C: “처음 보다는 듣게 돼요.”
학생D: “저도요. 근데 아직 악보 따라
가기 바빠요.”

* 기존단원

학생H: “저희소리가 잘 들려서 연주
하는 데 좀 더 편해졌어요.”
학생K: “주선율을 들으니까 소리를
조절하게 돼요.”

- 6차시 수업 중

6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이전보다 주선율을 인식하려고 하였고, 악보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를 들으려는 모습이 보였다. 아직 신입단원들은 합주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 마다 개인차가 심하고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존단원들은 이전에 합주수업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방법을 쉽게 터득하고, 이해하였으며 그만큼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나 셈여림을 조절하는 등 많은 발전을 보였다. 9차시 수업까지 마무리 한 후 신입단원들의 실력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교사: “모두들 자신이 맡은 곡의 선율이 정확히 파악이 되었나요?”

*신입단원

학생A: “이제 악보 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선 하나면 쉬워져요.”

학생D: “악보 읽는 것이 빨라졌어요.”

학생E: “바로바로 보는 건 아직 어렵지만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 9차시 수업 후 학생들의 반응

위의 학생들은 신입단원 중에서도 악보를 읽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던 학생들이다. 하지만 리듬 수업을 통해 리듬을 인지한 후 선율을 파악하는 수업이 바로 진행되어 악보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고 자신감을 가지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 (자유롭게 쓰세요.^^)
어제보다 느낌이 향상된 것 같다

<그림 IV-11 9차시 모듬 평가지 중 수업 후 느낀 점>

내가 만든 부분이 부족한지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림 IV-12 9차시 모듬 평가지 중 모듬의 자랑할 점>

·9차시 수업 후

주선율 파악을 통하여 반주 선율들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였고, 연주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합주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나갔다. 또한 학생들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모듬 평가지를 통해 모듬원들의 실력들이 점차 향상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 통해 기존단원은 물론 신입단원들까지 합주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서로의 소리를 듣고 서로가 맞춰가는 방법을 터득하여 연주하였으며, 학생 개개인의 맡은 선율들이 좀 더 정확히 연주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 우린 제법 잘 어울려

리듬과 가락영역 수업에 이어 화성영역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제재곡에 대해 정확한 리듬과 가락을 연주하면서도 화성의 조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았다. 아무리 합주 전에 정확하게 튜닝을 해도 곡의 중간 중간에 음정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현악기의 경우는 각 음의 지판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음정이 변하며, 관악기의 경우는 대부분의 악기가 키를 눌러 사용하기 때문에 첫 음정만 정확히 맞춰놓으면 음정은 정확하지만 개개인의 호흡에 의해 음정이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의 정확한 음정

파악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음정과 화성 파악을 위해 피아노를 활용하여 어울림 음정과 안 어울림음을 느끼도록 하였다. 어울림음정은 합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인 장3도, 단3도, 완전5도의 음정을 사용하였고, 안 어울림음정은 장2도, 단2도, 장7도, 단7도의 음정을 사용하여 어울림음정과 안 어울림음을 구별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음정의 간격에 대한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울림음정과 안 어울림 음정은 쉽게 구별하였다. 그 다음으로 전 파트의 화음을 맞추기 위한 모듬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모듬활동을 시작하기 전 교사는 각 모듬에서 한 명씩 임의로 선정하여 3화음이 나오는 부분을 합주하게 하였다. 이후 직접 연주한 학생들과 감상한 학생들에게 질문하였고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교사: “각 모듬별에서 한 명씩 합주한 부분의 화음은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 신입단원

학생B: “소리가 안 예뻐요.”

학생E: “불협화음 같아요.”

* 기존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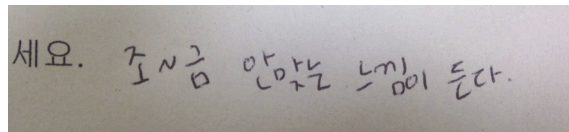
학생H: “음정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학생K: “정확하게 연주되는 것 같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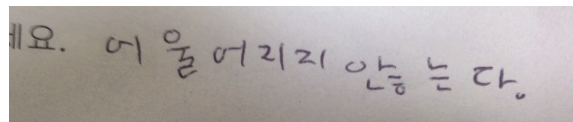
· 4차시 수업 모듬활동 전

연주한 학생들은 대부분 리듬과 가락은 정확하게 연주한 반면, 음정은 대체적으로 잘 맞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학생들도 음정이 잘 맞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는 모르는 상태였다. 따라서 교사는 연주한 팀의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어 주고 잘 어울리는 3화음의 구조를 모두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화음이 잘 안 맞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오케스트라에서의 화음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화음은 모두의 음정이

정확해도 한 사람 음정이 함께 맞혀지지 않으면 좋은 화음으로 어울림 구조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하기”라는 성취목표를 제시하며 모듈별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정확한 음정을 맞출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4차시의 모듈 평가지의 내용이다.



<그림 IV-13 4차시 모듈 평가지 중 모듈의 부족한 점 A>



<그림 IV-14 4차시 모듈 평가지 중 모듈의 부족한 점 B>

·4차시 수업 후

처음 화성영역의 모듈활동을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음정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아 굉장히 힘들어 하였다. 각 모듈별로 한 명씩 임의로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 하고 혼자 한 파트를 담당해야한다는 부담감과 실수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 또한 리듬과 가락 수업보다 실력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느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서로의 소리를 듣고 서로 보완해주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점차 음정의 하나로 맞춰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합주활동에서도 화성의 조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은 7차시의 모듈활동 중 학생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교사: “모듬끼리 음정이 잘 맞춰지고 있나요?”

* 신입단원

(제1모듬)

학생E: “서로 소리줄 집중하다 보니까,
절절 음이 정확해져요.”

(제2모듬)

학생A: “혼자하면 잘 맞는 음정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선율을 같이
연주하니깐 조금씩 느껴져요.”

(제3모듬)

학생C: “저번보다 많이 좋아진 거
같아요.”

* 기존단원

(제1모듬)

학생I: “처음에는 너무 음정이 제각각
이었는데, 절절 맞춰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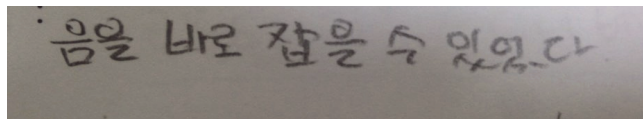
(제2모듬)

학생G: “소리가 잘 어울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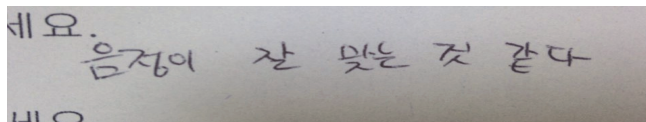
(제3모듬)

학생J: “같은 선율을 같이 연주하니깐
음정이 절절 정확해졌어요.”

·7차시 수업 모듈활동 중



<그림 IV-15 7차시 모듈 평가지 중 수업 후 느낀 점>



<그림 IV-16 7차시 모듈 평가지 중 모듈의 자랑할 점>

·7차시 수업 후

학생들은 점차 음정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지며 모듈활동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가 음정을 맞췄다는 것에 대해 성취감을 보였다. 또한 부담스러워 했던 개별 연주도 점차 음정이 정확하고 일정해지며 제법 잘 어울리는 소리를 만들어나갔다. 다음은 10차시 수업에서 각 모듈별로 한 명씩 선정되어 합주한 후의 학생들의 반응이다.

교사: “각 모듈별로 한 명씩 합주한 부분의 화음은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 신입단원

학생A: “소리가 아플다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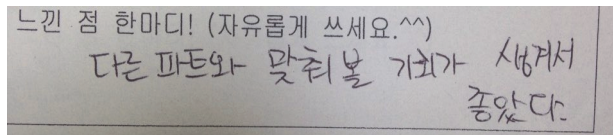
학생D: “화음이 서로 잘 어울려요.”

* 기존단원

학생G: “다 같이 합주하면 소리가 더 잘 어울릴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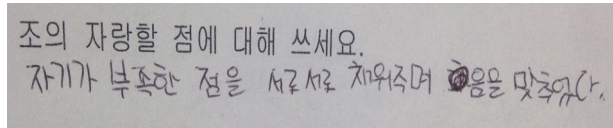
학생L: “음정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연습한 보람이 있어요.”

·10차시 모듈활동 후



느낀 점 한마디! (자유롭게 쓰세요.^^)
다른 파트와 맞춰볼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그림 IV-17 10차시 모듈 평가지 중 수업 후 느낀 점>



조의 자랑할 점에 대해 쓰세요.
자기가 부족한 점을 서로서 채워주며 음을 맞추었다.

<그림 IV-18 10차시 모듈 평가지 중 모듈의 자랑할 점>

·10차시 수업 후

위에 나타난 것처럼 학생들은 이전보다 개인적인 실력은 물론 모듈의 실력도 함께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화성은 소리라는 감각으로만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꼈지만,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점은 공유하고 단점은 보완해나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음정을 기계에만 의존하여 혼자만 맞추기 보다는 여럿의 소리를 통해 어울림을 직접 느끼며 학생 스스로 화성의 조화로움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2. 사회성의 변화

사회성 영역은 LT모형의 학습 절차에 따라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수업계획과 역할분담, 긍정적 목표상호의존성의 구조화, 모둠 간 협동의 구조화, 바람직한 행동의 상세화, 모둠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생의 사교성과 협동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가. 함께라면 즐거워

1차시 수업 때 오케스트라의 분위기는 아주 조용했다. 서로 인사는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각자 자리에서 연습 준비를 하고 앉아서 휴대폰만 하는 모습이였다. 출석을 부르며 학년과 담당악기를 파악하고 서로 아는 사이인지 물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교사: “우리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조용하네요. 서로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죠?”

* 신입단원

학생A: “얼굴은 알아요.”

학생C: “잘 모르는데..”

학생E: “이번에 같이 들어온 친구들은 알고, 언니, 오빠들은 처음 봐요.”

* 기존단원

학생I: “별로 안 친해서 말을 해보지 않았어요.”

학생J: “그냥.. 이야기들 해 본 적이 없어서”

학생K: “거의 얼굴만 알고 신입은 처음 봐요.”

·1차시 수업 중

대부분 얼굴은 알지만 이름은 잘 모르는 상태였고 알아도 서로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다거나 어색하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신입단원과 기존단원

은 함께 오케스트라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 서로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 먼저 1차시 수업 때 조를 편성하고 자기소개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서로 최대한 얼굴을 보며 익히게 하였다. 학생들은 학년과 이름, 담당악기를 소개하고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 점차 수업 분위기가 환하게 변하였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학생들의 개별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뷰 내용>

교사: “기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신입단원

학생D: “1명.. 그리고는 거의 처음 봐요.”

* 기존단원

학생K: “1명 정도. 00이랑 친해지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 10차시 개별 인터뷰 중

교사: “이번 오케스트라 모듬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단원이 있나요?”

* 신입단원

학생D: “00언니, 00이, 00이,00오빠.. 얼굴은 거의 다 알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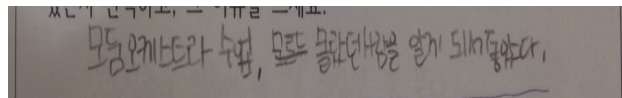
* 기존단원

학생K: “거의 다 알게 된 거 같아요. 바이올린 1ST에 00, 00, 00이, 00이..(중략)..플루트에 00이, 00이, 00이, 피아노에 00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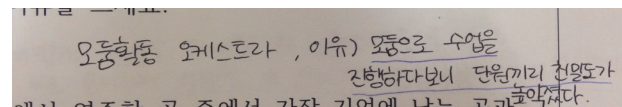
· 10차시 개별 인터뷰 중

모듬활동을 통하여 점차 학생들 간의 사교성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존의 수업에서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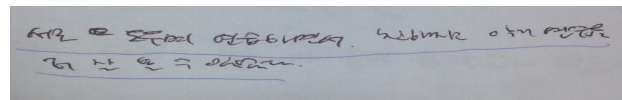
의 이름과 학년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모듬활동 수업 후 같은 모듬활동 한 학생들은 물론, 다른 파트의 학생들까지 대부분 관계형성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신입단원 학생D와 기존단원 학생 K는 기존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소수의 학생들과 교류를 하던 학생들이었는데, 이번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단원과 친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 간의 친밀도를 높여 사교성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고, 오케스트라의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이는 학생들의 개인 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IV-19 개인 보고서 중 중 수업 후 잘된 점 A>



<그림 IV-20 개인 보고서 중 수업 후 잘된 점 B>



<그림 IV-21 개인 보고서 중 수업 후 잘된 점 C>

·10차시 모듬활동 개인 보고서 중

처음에는 서로 교류가 거의 없었던 신입단원과 기존단원은 점차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갔던 모습을 인터뷰 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특히 낮가림이 심하고 단원들과의 교류가 한정적이었던 신입단원 학생A와 기존단원 학생 I의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 내용>

교사: “이번 오케스트라 모듬활동을 하면서 잘 모르는 단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 하였나요?”

* 신입단원

학생A: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먼저 말을 걸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했어요.”

* 기존단원

학생I: “여자애들이랑 말을 거의 안했는데, 모듬활동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남자애들만큼 친해졌어요.”

-10차시 개별 인터뷰 중에서

위의 학생들의 초기상태를 보면 신입단원 학생A는 거의 말이 없고, 개인적으로 행동하며 교류하는 단원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모듬활동의 과정 속에서 점차 단원들과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 사교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단원 학생I도 동성친구들인 남자학생들 하고만 교류를 하며 신입단원이거나 여자학생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모듬활동을 통해 단원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교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상호의존성 관계 형성을 통해 사교성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 내용>

교사: “이번 모둠활동 중에 도움을 받은 점이나,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 신입단원

학생D: “도움을 주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면서 가르쳐 주니까 제 머리 속에도 다시 들어오는 것 같고, 모둠원이 잘하게 되니까 가르쳐 준 보람도 느꼈어요. 그리고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 기존단원

학생H: “둘 다 있는데, 일단 도움을 받았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잡아줘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고, 도움을 주었을 때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막상 하고 보니까 도움을 받은 아이가 확실히 실력이 향상돼서 뿌듯했어요.”

-10차시 개별 인터뷰 중에서

위에 나타난 것처럼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공유하며 모둠 안에서 학생들에게 서로 도움을 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움을 준 학생은 상대 학생이 자신의 도움을 받고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며, 자신감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움을 받은 학생도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인식하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며, 상대 학생에게 고마움 감정을 느끼며 서로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에 따른 변화로 이를 계기로 학생들은 친분을 쌓고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도 즐거움을 얻으며 사교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우리함께 WIN WIN

학생들은 교사에 지시에 맞추어 연습하는 오케스트라 수업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LT모형으로 진행되는 오케스트라 수업을 어색해 하였다. 또한 무조건 교사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상호의 존성을 높여 협동성을 기르기 위해 서로가 연결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분담된 역할과 담당 내용은 다음 <표 IV-2>와 같다.

<표 IV-2> 모듬의 분담 역할과 담당내용

역할	담당 내용
점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들이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같은 박자로 연주할 수 있도록 지휘를 하거나 손과 발로 박자를 친다.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 안에서 연습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다. 교사나 다른 모듬과 의사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한다.
기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의 학습지를 기록하고, 모듬 악보의 필기를 담당한다. 수업 후 모듬원의 명찰을 걷는다.
관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검자를 도와 모듬 안에서 협동적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구성원들이 협동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IV-22 수업 시 사용된 역할분담 명찰>

분담된 역할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역할은 모둠 구성원끼리 자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하였다. 단, 수업중간에 역할을 바꾸는 것은 서로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금지하였고, 매 수업마다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둠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명찰을 만들어 배부하였다. 역할을 배정할 때 학생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교사: 모둠별로 역할을 배정할 거예요. 역할은 절걸자, 연구자, 기독자, 관찰자들이 있고...(중략)...

* 신입단원

학생A: “나는 기독자 할래! 다른 건
어려울 거 같아.”

학생B: “나도 기독자 하고 싶은데..
그럼 오늘은 내가 절걸자 할게.
내일은 내가 기독자!”

* 기존단원

학생H: “그럼 너는 관찰자 하면서
도와줘. 00이는 다른 모둠이랑
잘 아니까 연구자해주고.”

학생J: “나도 절걸자 하고 싶은데..
그럼 내일은 내가 절걸자
할래!”

· 2차시 수업 모둠활동 중

위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학생들은 모둠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의논하여 역할을 정하였다. 역할을 통해 서로 책임감과 협동성을 가지게 되며, 점차 교사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줄어들었고, 모둠 안의 문제들도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몇몇이 학생들은 소통하는 것에 어색해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학습 형태를 띠고 있었다. 또한 연습시간에 맞춰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었고, 매 수업은 20~30분씩 늦게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T모형의 긍정적 목표상호의존성의 과제와 보상 구조화 절차를 사용하여 스티커 보상제를

실시하였다. 스티커 보상제도는 개인별로 스티커 판을 나눠주고 개인별로 보상하는 제도, 모둠별로 보상하는 제도를 나누어 스티커를 부여하였다. 마지막 수업 때 모둠별로 구성원의 스티커를 합산하여 가장 많은 스티커를 소유하고 있는 모둠에게 선물을 증정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른 아이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교사: “이번 모듬활동에서는 스티커 보상 제도를 실시할 거예요. (중략)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모듬에게 선물을 증정할거니까 열심히 해봐요.”

* 신입단원

학생B: “내일 1등으로 와야겠어.”

학생F: “내일 10분 일찍 와야지.”

* 기존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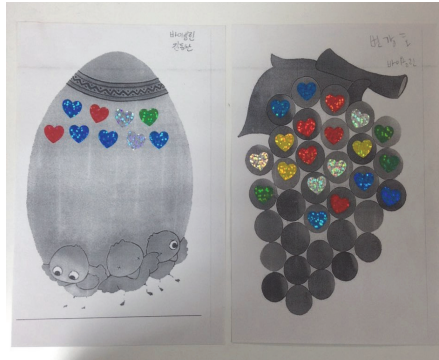
학생G: “우리 팀 1등 할 거니까 다들 지각하지 말자.”

학생K: “선물 꼭 받고 싶다. 우리 열심히 하자.”

학생L: “우리 1등 할 수 있을까? 잘 하고 싶다.”

· 3차시 수업 중

학생들은 스티커 보상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후 지각하는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30분씩 일찍 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모듬학습을 진행할 때도 소극적이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각각의 구성원들이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하며 단원들이 서로 협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IV-23 스티커 보상제도에 사용된 스티커 판>

이번 오케스트라 수업에서는 기존단원과 신입단원을 섞어서 조를 편성하였다. 동일한 악기파트에서는 연주 실력과 오케스트라 활동 경력을 고려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의 모둠을 형성하였다. 또한 매 차시마다 모둠별로 각기 다른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달성하도록 하였고, 모둠학습 후 모둠별로 한 명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주하도록 하였다. 이 개인 연주는 곧 모둠 평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매 차시 진행하다 보니 각자 개인 연주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도 서로가 가진 장점들을 공유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첫 수업의 어색함은 잊고 매 시간 모둠끼리 돈독해져 협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둠을 새롭게 구성할 때에도 어색해 하는 모습 없이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 하며 노력하였고, 도움을 주는 학생이나 도움을 받는 학생 모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다음은 모둠활동이 학생 개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한 인터뷰 내용과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다.

<인터뷰 내용>

교사: “모둠의 성취목표를 달성하였을 때의 기분과 모둠활동을 통해 발전된 점?”

* 신입단원

학생B: “같이 해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 전에는 자기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만 연습했는데, 오케스트라는 다 같이 맞춰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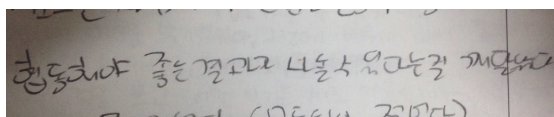
학생D: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이 생겼고, 발전된 점은 혼자 연습할 때,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이 틀린 부분을 알려줘서 고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기존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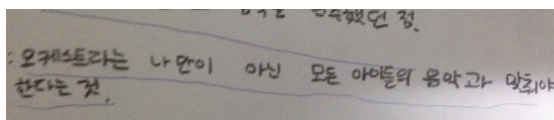
학생H: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뻛고, 발전된 점은 개개인의 실력이 향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둠 전체의 실력도 향상된 것 같아요.”

학생J: “함께 달성해서 더 기뻛요. 모둠활동 하기 전에는 몰라도 그냥 넘어갔는데, 같이 하니까서 잘 알려주고 도와줘서 다 같이 잘하게 된 것 같아요.”

·10차시 개별 인터뷰 중



<그림 IV-24 10차시 개인 보고서 중 배우게 점 A>



<그림 IV-25 10차시 개인 보고서 중 배우게 점 B>

·10차시 모둠활동 개인 보고서 중

수업 첫 시간의 학생들은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왔는지는 관심이 없고, 자기자리에 앉아서 준비하기 바빴다. 또한 합주를 할 때도, 연주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른 학생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로 가만히 있거나, 혼자 해결하였다. 하지만 협동학습 오케스트라 수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연주하고, 문제를 함께 부딪치고 해결하면서 협동성이 높아졌다. 특히 위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오케스트라는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해야 비로소 좋은 연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수업을 통해 협동적인 구조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 중학생의 음악요소와 사회성의 변화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오케스트라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학교 1개교에서 10차시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도구로는 모둠 평가지, 개인 보고서, 개별 면담, 교사의 관찰, 수업 영상, 수업 영상 전사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로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리듬영역에서는 LT모형의 상호의존성을 보증하는 역할분담과 긍정적 목표상호의존성의 구조화, 개별적 책무성의 구조화, 모둠 간 협동의 구조화, 모둠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리듬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듬영역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의존성을 위하여 지휘하는 역할, 개인의 리듬을 확인하는 역할, 전체의 리듬을 확인하는 역할로 나누어 수업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박자가 일정해졌어요.’, ‘모듬원이 동일한 박자에 맞출 수 있어서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모듬의 리듬실력이 향상된 것을 나타내었고, 개인의 리듬실력 또한 향상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듬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학생의 개별적 책무성과 모듬간의 협동의 구조화가 요구되어 리듬학습에 더욱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락영역에서는 LT모형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수업계획과 긍정적 목표상호의존성의 구조화, 개별적 책무성의 구조화, 모듬 간 협동의 구조화, 모듬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가락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영역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상호의존성을 위하여 주선을 악보를 하나만 제시하여 모두가 같이 보고 가락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업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나며 가락 파악을 위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수업 후 ‘실수를 알고 고칠 수 있었다.’, ‘어제보다 많이 향상된 것 같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고, 리듬과 마찬가지로 모둠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학생의 개별적 책무성과 모둠간의 협동의 구조화가 요구되어 가락학습에 더욱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화성영역에서는 LT모형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수업계획과 긍정적 목표상호의존성의 구조화, 개별적 책무성의 구조화, 모둠 간 협동의 구조화, 모둠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화성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영역에서는 모듬구성원의 동일한 음정을 위한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수업계획을 통하여 서로의 소리를 듣고 음정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긍정적 목표상호의존성의 구조화가 나타나며 학생들은 ‘음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자기의 부족한 점을 서로서로 채워주며 음을 맞추었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화음실력이 향상된 것을 나타내었다. 리듬, 가락과 마찬가지로 모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학생의 개별적 책무성과 모듬간의 협동의 구조화가 요구되어 화성학습에 더욱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사회성 중 사교성 영역에서는 LT모형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수업계획과 역할분담, 긍정적 목표 상호의존성의 구조화, 모듬 간 협동의 구조화, 바람직한 행동의 상세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듬의 성취목표를 위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며 친밀감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몰랐던 사람을 알게 되었다.’, ‘단원끼리 친밀도가 높아졌다.’, ‘서로 도우며 연습하면서 친해지고 악기 연습을 더 잘 할 수 있었다.’ 라는 반응을 나타내며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사교성이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사회성 중 협동성 영역에서는 LT모형의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수업계획과 역할분담, 긍정적 목표 상호의존성의 구조화, 모둠 간 협동의 구조화, 바람직한 행동의 상세화, 모둠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협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역할분담을 통하여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학생 개인 인터뷰를 통해 ‘모듬이 함께 해내서 뿌듯하다.’, ‘오케스트라는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맞춰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서로 알려주고 도와줘서 다 같이 잘하게 되었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며 협동적인 구조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협동성이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T모형을 적용한 오케스트라 수업은 중학생의 음악요소와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내었으며, 실제 오케스트라 수업에 적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부분에 있어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학년에 맞게 재구성하면 전 연령의 오케스트라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1). **음악교육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 김동환(1996). **교육사회학연구**. 서울: 상조사.
- 김명희(2004). **아동의 사회성 교육**. 서울: 교육아카데미.
- 남영신(2008). **국어대사전**. 파주: 성안당.
- 문성원(2003).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 평정척도 I (K-SSRS:중고생용 I)의 표준화 :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유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pp. 235-258.
- 박은영(2009). **협동 활동이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숙희, 염명숙(2013). **교수-학습과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변영계(1999). **협동학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서윤정(2014). **초등미술수업에서 LT 협동학습 모형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파주: 교육과학사.
- 성시민(2012). **초등학생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정서지능 및 사회지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태제 외 12명(2014). **최신 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송민영(2015). **협동학습 LT모형을 적용한 가창활동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지예(2015).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중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교적응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승윤희, 민경훈, 양종모, 정진원(2013). **예비교사와 현장교사를 위한 초등 음악교육**. 서울: 학지사.
- 신현남, 윤경미, 구희연, 양현경(2011). **음악 이론**. 서울: 교학사.
- 윤수정(2014). 협동학습 LT모형을 적용한 중학교 기악 합주 교수법.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희, 이규미(2012). “고등학생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상담학회**, 13(3) pp. 1537-1561.
- 이성은, 오은순, 성기욱(2002). **초·중등 교실을 위한 새 교수법**. 파주: 교육과학사.
- 이성천(2012). **음악통론과 그 실습**. 서울: 음악예술사.
- 이은정(2015).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림, 김영숙(2006). **인간발달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전성연(2007). **협동학습 모형 탐색**. 서울: 학지사.
- 정문성(2007). **협동 학습의 이해와 실천**. 파주: 교육과학사.
- 최혜빈(2015). 협동학습 모형을 혼합한 중학교 기악합주 지도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심리학회(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서울: 학지사.

한선혜(2010). 중학교 관악합주부의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 음악의 기초개
념 학습을 통하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BSTRACT

The Implication of LT Model Applied Orchestra Activity on Musical and Social Asp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Hyeong-Jin Ah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LT model applied middle school orchestra activity on the students' musical and social aspects, which has high applicability among cooperative learning schemes.

Twelve students ranging from first grade to third grade were sampled from a middle-school orchestra club located in Seoul, Korea. A total of ten sessions were conducted to qualitatively assess their performance via video records, evaluation questionnaires, students' personal reports, individual face-to-face meetings, and instructor's observations. As a result, we came to a conclusion that both rhythm, melody, and harmony from musical aspects and sociability and cooperativity from social aspects of students were improved.

First of all, the application of LT model to the orchestra class advanced the students' rhythmic aspects. After the group lesson, a number of students reported positive remarks by saying "Counting beats became steady and consistent", and "Being able to have a uniform rhythm as a group is wonderful". Overall, the rhythmic quality of the group and the individual showed positive improvements. In other words, the implication of LT model that requires not only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but also the cooperation among the group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in overall rhythmic skills of the students.

Second, the application of LT model showed positive development in terms of the melody among the students. Students gave constructive feedbacks including "We were able to acknowledge and fix our mistakes by ourselves" and "We see the enhancement of melody skill is getting better and better every day".

By means of the LT model structure that requires the both individual and cooperative contribution, lessons on melody induced advanced improvement.

Third, the application of LT model drove successful change in students' harmonic skills. By reporting "Tuning became accurate", "We were able to cooperatively tune with each other to bring out the harmony", students showed great achievements in harmonic techniques in musical aspects. As with the rhythm and melody, the structural duality that requires individual and group work attributed to lessons on harmony.

Fourth, the LT model applied orchestra promoted sociability among the

students. Comments by the students—“We were able to mix and mingle with the people I never met before” and “Learning with our friends as a group brought great motivations when we were practicing”— shows that the LT model driven class has positive impact on students’ social skills. Indeed, the structural advantage of LT model that bolsters mutual interdependence among the students through specific lesson plans, separation of students’ role and responsibility, objectification of interdependency created a supportive and cooperative atmosphere, which has attributed to students’ sociality accordingly.

Fifth, the application of LT model in orchestra heightened the cooperative skills among the students. Optimistic responses reported from the students— “Being able to accomplish as a group felt great”, “I realized that orchestra is not just about myself, but performance of the group as a whole”— It can be viewed that the structuration of group works positively impacted on cooperative skills among the individuals.

To sum up, our study proves significance in that the LT model implication to orchestra activity has numerous educational benefits; therefore, we hope that such model would aid music instructors at school orchestra to bring about invigorating cooperative orchestra activities in the future.

부 록

<부록 1> 모듬 평가지

<오케스트라 모듬 평가지>

조이름 :

작성자 :

모듬원이 음정을 정확히 맞추어 연주 했는가?	1 2 3 4 5
모듬원이 리듬을 정확히 맞추어 연주 했는가?	1 2 3 4 5
모듬원간의 호흡은 잘 맞추었는가?	1 2 3 4 5
곡의 셈여림을 잘 맞추어 연주했는가?	1 2 3 4 5
지휘를 보고 박자를 잘 맞추어 연주 했는가?	1 2 3 4 5

<오케스트라 개별 평가지>

모듬원 이름	연습에 잘 참여하는가?	소리가 잘 어울리는가?	실력이 향상되는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 * 모듬의 자랑할 점에 대해 쓰세요.
- * 모듬의 부족한 점에 대해 쓰세요.
- * 오늘 수업을 통해 느낀 점 한마디! (자유롭게 쓰세요.^^)

<부록 2> 개인 보고서

<오케스트라 모듬활동 개인 보고서>

봉원중학교 올림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
3달간의 협동학습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드디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참여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
이번 연습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졸업식 날 멋진 연주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음악을 즐기며,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길^^
항상 응원합니다!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안 형 진

담당악기 : 학년 : 이름:

1. 기존 오케스트라 수업과 모듬활동 오케스트라 수업 중 어떤 것이 더 좋았는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세요.
2. 이번 모듬 활동 수업에서 연주한 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곡과 그 이유를 쓰세요.
3. 모듬 수업을 통해 느낀 점들을 쓰세요.
 - 가장 좋았던 점 :
 - 배우게 된 점 :
 - 아쉬웠던 점 :
 - 힘들었던 점 :
 - 그 외 느낀 점 :

<부록 3> 개별 인터뷰 질문지

<오케스트라 모듬활동 개별 인터뷰 질문지>

영역	질문
기본정보	1. 학년과 이름, 담당악기는?
	2.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 기간은?
사교성	1. 기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1. 알고 지내던 단원 중에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한 단원이 있나요?
	2. 이번 오케스트라 모듬활동을 통해서 이름과 얼굴을 새롭게 알게 된 단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2-1. 새롭게 알게 된 단원 중에 생각과 감정을 공유한 단원이 있나요?
	3. 기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잘 모르는 단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 하였나요? 그 이유는?
	4. 이번 오케스트라 모듬활동을 하면서 잘 모르는 단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그 이유는?
	5. 이번 모듬활동 중에 도움을 받은 점이나,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5-1. 있다면, 기분이 어땠나요?
	6. 이번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고마움을 느낀 단원이 있나요? 그 이유는?
협동성	1. 기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다른 단원들과 잘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그렇게 한 이유는?
	2. 이번 오케스트라 모듬활동을 하면서 다른 단원들과 잘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그렇게 한 이유는?
	3. 모듬의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으며, 모듬 구성원들 끼리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그렇게 한 이유는?
	4. 모듬의 성취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5. 모듬활동을 통해 발전된 점과 아쉬웠던 점은?